한국하이델베르그 & 삼화/Westland롤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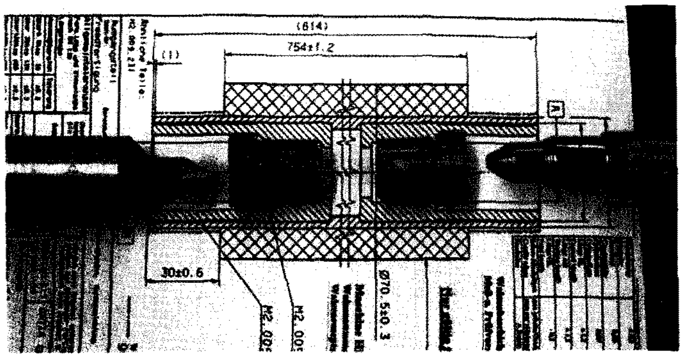
사피라 롤러 품질개선 위해 노력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한국하이델베르그(주)와 (주)삼화/Westland롤러스는 2006년 사피라 롤러 공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꾸준히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사피라 롤러는 세계 유수 롤러 제작사인 독일 웨스트랜드(Westland) 사의 제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삼화롤러스사에서 웨스트랜드사의 고무를 포함한 롤러 부품을 직접 수입하여 하이델베르그 스탠다드에 요구되는 모든 사양에 맞추어 제조한 하이델베르그 고유 브랜드 제품이다.

사피라 롤러는 독일 웨스트랜드 기술과 오리지널 고무 및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최고의 품질이지만 국내 인쇄 환경(예를 들어 벤졸 등 강한 세척액 사용문제, 종이 지분 과다, 잉크에 피그먼트 점도가 다른 점, 24시간 기계 가동 등)이 독일 및 유럽 환경과 달라 국내 실정에 맞게 스팩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변화하는 고객의 품질 요구에 맞추어 모든 제조 공정을 제품 품질인증서(PQC)에 맞추어 점검하고, 정밀한 가공을 위하여 독일의 Westland사에 자문하여 검사용 공구 개발 및 최신의 레이져 측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확한 품질 진단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품질 결과를 얻게 되었다.



▲▲ 하이델베르그와 (주)삼화/Westland롤러스의 사피라 롤러 품질개선을 위한 회의모습
▲ 파이프타입 연마용 공구

품질 개선위원회 발족해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

양 회사는 2006년 9월부터 사피라 롤러를 공급해 왔으며,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품질 불만과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 제품 공급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10년 6월 24일 품질 개선 위원회(QIC)를 발족해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품질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에는 한 고객을 선정하여 한국하이델베르그 기술부 인스트럭터와 삼화롤러스 품질개선팀이 참여한 가운데 품질 테스트도 진행되었으며, 만족스런 결과를 얻은 바 있다.

6월 27일 한국하이델베르그 본사에서 열린 올해 네 번째 품질개선위원회 회의에서는 품질불만 접수 보고서를 통해 고객의 품질 불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 또한 시장에서의 사피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보다 더 확고히 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사피라 롤러 홍보'를 위한 주제로 회의가 열렸다.

광고 및 홍보의 일환으로 사피라 롤러 소개 브로셔 공동 제작, 하이델베르그 롤러 시스템 및 유지보수에 관한 핸드북 제작 등 인쇄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장 및 기계 관리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용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앞으로도 양사는 지속적으로 품질개선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인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서로 다짐했다.